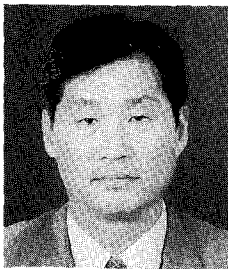


내가 최고라는 아집(我執)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에 늘 관심을...



이 준 동

(사철농장 대표/본회 청주육계분회장)

육계 사육은 '종합 예술' 이라고 생각한다.

한 악기의 연주가 맞지 않으면 좋은 하모니(Harmony)를 이룰 수 없듯이 육계 사육도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최고의 성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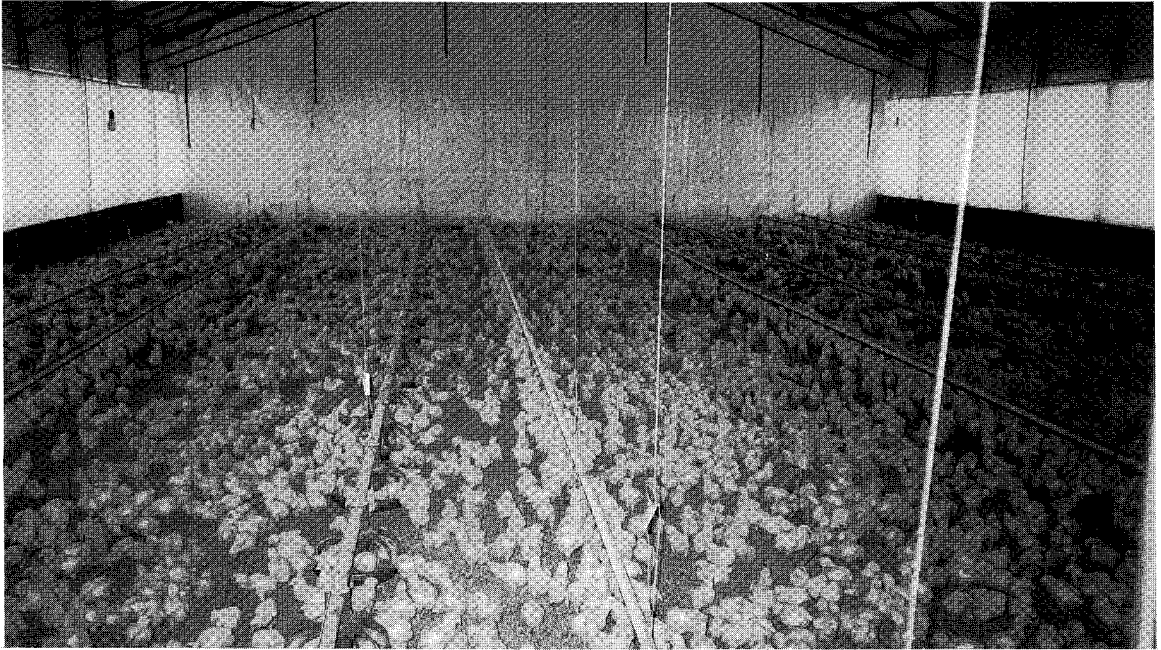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이 최고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세도 아니고 사육 시기도 아닌 잘 사육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노력으로 신기술(新技術)을 습득하고 병아리를 선별할 수 있고,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선구안(先臆眼)을 가지고, 질병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최고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에 충실하라

사육 기술 중에 으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기본을 무시한 편법으로 최고의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육계 사육은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혹한기(酷寒期)나 혹서기(酷暑期)에는 더더욱 원칙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 사육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 다음은 질병을 예방하고 관찰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흔히 시세에 혹자를 보고도 질병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투약도 예방 차원이라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질병 발생 후에는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효과도 반감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사업을 실패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인정이나 또 다른 조건 등으로 잘못된 병아리를 입추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법적 전염병 예방도 현재 우리 나라 체제 하에서는 농가에서 스스로 터득한 방법으로 백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지역과 같은 경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ND백신이 농가에서 선호하는 백신과는 거리가 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백신을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더 부담이 되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믿음이 가는 백신을 시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질병을 방어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내가 최고라는 아집(我執)을 버려야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다.

2. 병아리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眼目)을 길러라

완벽한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종계 관리의 투명성이 더 확보되고 병아리 등급제 같은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농가는 스스로 병아리 선택기준을 정해서 잘 선별된 병아리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 계열화 업체와 계약 사육을 하는 농가는 병아리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에 이끌려서 품질이 나쁜 병아리를 입추하는 우(憂)는 범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병아리 품질이 좋지 않은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몇 년 동안 계약 사육을 하면서 경험한 일이다.

또 지역에 있는 축산 연구소에 혈청 검사도 꼭 의뢰해서 자기 병아리의 방어 수준도 알고 사육에 임하길 바란다.

육계 사육은 농사이기도 하지만 사업이기

도 하다. 자기 사업을 실패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인정이나 또 다른 조건 등으로 잘못된 병아리를 입추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3. 사료의 품질에 대해 신경써라

사료의 품질이 육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시중에는 사료 효율이 1.8인 사료와 2.0인 사료가 있다고 하고, 가격도 천차만 별이다.

사료 선택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농가에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

급이기에 닭이 사료를 먹는 모습이나 매일 투입되는 사료의 양 등을 잘 기록하고, 미심쩍다면 사료 품질 검사도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 각 지역 회원 상호간이나 협회 회의때 서로 정보를 교환한 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열심히 기본에 충실하고, 좋은 병아리와 좋은 사료가 갖춰진다면 육계 사육의 전망은 밝을 것이다.

질병의 부담이 없이 건강한 닭을 키울 수 있다면 수출용으로 키우는 큰 중량의 닭이나 잔류 약물 걱정이 없는 위생적인 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청정한 닭고기로 국민 건강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으며, 수출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위와 같은 제반 사항들이 잘 맞아서 좋은 육계를 사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계**

자동부화기



생 산 품 목

소형 · 중형 부화기 제작전문
특수조류 부화기 주문제작

부화기 종류

닭, 꿩, 오리, 타조, 메추리, 칠면조

용 량

- KE-90(90Eggs)
- KE-180(180Eggs)
- KE-300(300Eggs)
- KE-500(500Eggs)
- KE-1000(900Eggs)
- KE-3000(3000Eggs)

은 조 상 사
(031)575-0759